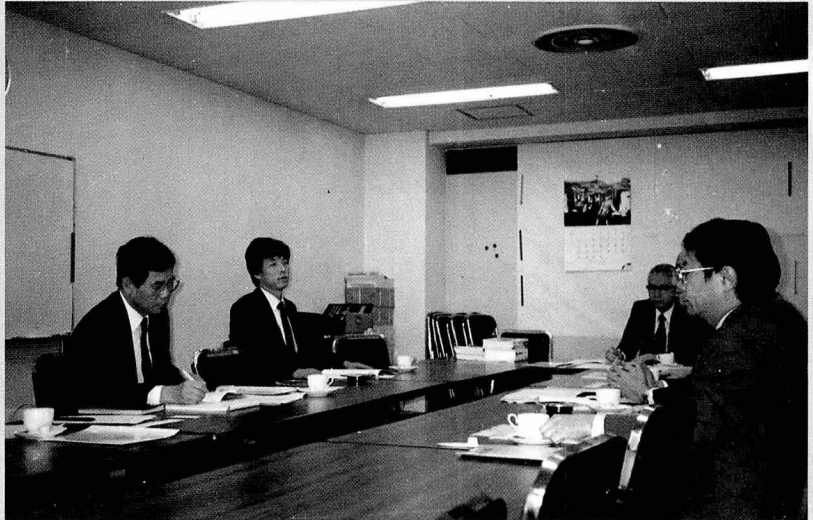


# 협 협회동정



▲일본정보통신진흥협회(JICOA)와의 실무협의 광경.

## 일본 정보통신진흥협회 방문

협회는 해외 유관단체와의 협력체 제구축을 위한 국제협력사업의 일환으로 지난달 15일부터 5일간 일본 정보통신진흥협회(JICOA)를 방문, 상호 협력방안에 대해 구체적인 의견을 교환했다.

협회는 이 회담에서 상호교류를 통한 정보교환, 양국 업계간의 협력, 정보통신에 관한 공동연구 등의 내용이 담긴 협

정안을 제의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일본측에서는 참석자 모두가 환영의 뜻을 표했다. 양협회는 12월말까지 각서를 교환하고, 이사회의 승인을 거쳐 내년 3월중 양측 회장단이 만나 정식 협정을 체결하기로 했다. 또한 양측의 총회 개최시 상대측 협회장을 연사로 초청하는 문제도 신중히 검토하기로 합의했다.

협회에서는 이번 교류협력을 토대로 동남아시아 및 태평양연안으로 활동영역을 넓혀나갈 방침이다.



◀ 이날 좌담회에서는 앞으로 정보화사회에서 발생되어질 여러 문제들에 대한 대책방법도 논의되었다.

## 국제협력위원회 소집

협회는 5개 분과 위원중 해외의 유관 단체와의 상호협력 분야를 전담하고 있는 국제협력위원회를 지난달 29일 협회 회의실에서 개최했다.

지난 2차회의시 일본정보통신진흥협회(JICOA)와의 협정체결 결의에 이어 이번 3차 회의에서는 현지방문단의 협회결과 및 협력단체의 확대방안을 중점적으로 논의했다.

이외에도 태평양 연안 정보산업토론회의 기능 및 유치방안에 대해서도 논의 했는데 이 토론회의 주최자인 IIA (미국정보산업협회)에서는 현재 대만정보산업협회, 일본 정보통신진흥협회, 캐나다 정보산업위원회 등과 함께 우리협회의 참석을 제의하고 있다.

## 「정보화사회」 창간 1주년기념 좌담회 개최

협회는 「정보화사회로 가는 길, 무엇이 문제인가」라는 주제로 11월 30일 DA-COM PLAZA 2F 상황실에서 좌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좌담회는 통권 13권 ('88.12월호)으로 창간 1주년을 맞는 「정보화사회」 창간을 기념하여 산·학·연·관 및 일반 각계가 한자리에 모여 정보화



▲ 국제협력위원회 회의 모습

과정의 종합적 분석 평가와 함께 발전 방향을 제시코자 마련되었다.

이날 좌담회는 토론자와 플로어 간의 질의·응답시간도 마련되어 진행되었다. 한국전기통신공사의 徐廷旭 박사가 사회를 맡아 진행된 좌담회 토론자로는 金彰坤 과장 (체신부), 朴英惠 교수 (숙명여대), 盧仲鎬 전무 (쌍용컴퓨터), 俞承旼 박사 (한국개발연구원)가 참석했다.

## 법제위원회 소집

공중전기 통신사업법 개정안과 정보통신 회선 사용제도 개선내용을 검

토키위해 법제위원회가 이날 1일 협회사무국에서 열렸다.

이날 회의에 초대된 체신부당국자는 국내 정보통신사업 육성방안에 대한 연구·검토후 전기통신 관련법령 전면개편을 추진하되 우선 공중전기 통신사업법 과정을 위해 관계부처간 협의를 하고 있다고 밝히고 정보통신 회선 사용제도 개선 경위 및 내용을 설명했다.

그동안 정보통신회선 사용제한의 완화를 수차례에 걸쳐 건의했던 업계는 이같은 정부의 조치가 국내 정보통신사업의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내다보고 열렬한 환영의 뜻을 표했다. (관련기사 32면 참조)